

국내외 농산어촌유학 실태조사를 위한 해외 현장방문 결과보고

□ 목 적

- 산촌유학을 30여 년간 진행한 일본의 활동경험과 시행착오 등을 관련 사회적 정책 및 지원제도 등과 연계하여 조사 분석
- 특히 관련된 사회적 정책 및 지원제도 등과 연계하여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산어촌유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제시

□ 개 요

- 기 간 : 2011. 9. 1(목) ~ 9. 5(월)(4박5일)
 - 지 역 : 일본 오사카 일원
 - 출장자 : 가치홍보팀 조경익 팀장, 박금연 차장
 - (사)생태산촌만들기모임 : 박근덕 국장, 윤수연 팀장
 - 대안교육연대 : 김경옥 운영위원
 - 대안교육 민들레 : 현병호 대표
 - 성공회대 교양학부 : 하태욱 교수
 - 주요일정
 - <1일차> 교토 미야마산촌유학센터, 미야마산촌유학 참여농가
 - <2일차> 신하정립초지곡소학교 방문 및 담당교사 면담
 - <3일차> 카미가와산촌유학센터 파견 지역교류센터장 및 유학생 면담
 - <4일차> 소다테루카이 사무국장 면담
 - <5일차> 현장방문 연구진 및 유학센터 관계자 간담회
- ※ 당초 계획된 주말 캠프가 태풍으로 취소되어 일정 일부 변경

□ 출장결과

- <9월 1일> 교토 미야마유학센터 방문
 - (면담자) 사와다 미야마유학센터장 및 마을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 (현황) 14년 전 산촌유학 시작, 정원 12명에 현재까지 100여명 졸업
 - (계기) 농촌 거주 인력이 줄면서 지역학교가 축소되고 지역사회 침체
 - 지역살리기 일환으로 다양한 사업 진행 중에 일본 산촌유학의 시작인 소다테루카이를 참고하여 산촌유학 시작
- (운영방법)
 - 난단시 교육위원회에서 운영예산 총괄(유학비용 관리 및 예산지원)
 -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학생 선발 및 프로그램 운영전담하고 유학센터 지도교사 및 운영인원 관리 총괄
 - 일주일 동안 6일은 센터에서 공동생활, 1일은 지역 농가에서 개별생활
 - 모든 아이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위원회 면접을 통해 특별한 아이(아토피, ADHD 등)은 받지않고 있음
- (성과)
 - 지역주민들의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지며 오랜된 학교 신축 및 복식수업 해소
 - 산촌유학으로 시작된 인연이 귀촌으로 이어진 경우 4가구이며 학교가 활성화되다보니, 총 30가구 중에서 이주민이 더 많은 비율
 -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고 도시에서 출퇴근 하는 가정도 있음
- (현안)
 - 학생모집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매년 2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응모를 할까 걱정
 - 연2회 시행하는 체험학습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
 -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 등의 사유로 5~6명으로 줄여도 된다고는 하지만, 마을을 위해 현재 인원 유지하려고 노력

(관련사진)



미야마유학센터 입구



미야마유학센터를 다녀간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인형



미야마유학센터 사와다 센터장과의 간담회

○ <9월 1일> 미야마유학센터 홈스테이 농가 면담

(면담자) 미야마유학센터 홈스테이 농가 노보리오 부부

(현황) 5년째 유학센터 홈스테이 농가로 활동, 현재 2명 여학생과 지냄

(계기) 초창기 PTA(Parents Teachers' Association) 간부로 산촌유학도입
부터 관여하며 자연스럽게 참여

(운영방법)

-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닌 단체생활을 하는 유학센터와 달리 가정의 정서를 느끼게 해주는 역할
- 1주일에 하루 집에 머물고, 다음날 학교로 등교
- 처음에는 아들이 있어 남학생만 받았으며, 자녀가 도시로 나간 후 올해 처음 여학생 홈스테이 중으로 대부분 자녀의 성별에 따라 홈스테이 학생 정하는 경우가 많음

(성과)

- 14년간 미야마유학센터가 유지될 수 있게 도움을 준 것

(현안)

- 점점 마을에서 홈스테이를 자발적으로 원하는 농가가 줄고 있어 마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쉬움

(관련사진)



미야마유학센터 홈스테이 농가 노보리오 부부면담



그림 9

○ <9월 1일> 아쇼마을 방문

(면담자) 아쇼마을 이마이 다카시 대표

(현황) 지역살리기 일환으로 아쇼마을회사 운영(마을 주민 20여명)하고
학교살리기 일환으로 미야마유학센터 설립에 기초를 다짐

(계기) 70년대 이후 목재산업이 쇠퇴일로를 겪을 때 주변 산림을 이용한
산나물 가공을 통해 마을의 활기를 되찾음

(운영방법)

- 주변의 산림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버섯 등 산나물 가공
- 매출액 증가로 인해 아쇼마을의 산나물 뿐 아니라 다른 마을의 산나물을 구매하여 가공 판매
- 유통은 생협을 통해 전량 판매

(성과)

- 목재산업의 전성기를 지나면서 마을경제가 무너지던 시점에 새로운 산업의 발굴을 통해 마을의 살리기에 일조
- 지역의 산림자원을 해치지 않고, 마을 고유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며 경관이 아름다우면서 잘사는 마을로 변모
- 지역방송에서 아쇼마을의 4계라는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

(관련사진)



아쇼마을 주식회사에서 운영중인 펜션



산나물 가공산업으로 마을 제2의 전성기 개막

○ <9월 2일> 신하정립초지곡소학교 방문

(면담자) 마사토 오우치 교감

(현황) 5년 째 산촌유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11명의 유학생과 42명의
지역학생이 함께 학습

(계기) 해마다 줄고 있는 시골학교의 문제를 산촌유학으로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로 산촌유학센터 건립

(운영방법)

- 카미가와 교육위원회에서 산촌유학센터 설립, 운영 및 관리 총괄
- 학교에는 유학생 전담 교사 1인 배정
- 효고현에서는 카미가와 지역에서만 선생님 순환근무로 지곡소학교에 배정받는 선생님의 경우 산촌유학의 이해도가 높아 희망해서 옴
- 특히 교장의 경우 교육위원회에서 산촌유학에 대한 안목이 있는 사람을 파견하여 산촌유학 본래의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
- 산촌유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에 대한 인센티브는 특별하게 없음
- 교육위원회에서 학생 선발하며 1~2월 학생 선발시 교장이 직접 고베, 오사카 등의 설명회 장소에서 직접 인터뷰 실시

(성과)

- 복식수업이 없어지고 현지학생과 유학생의 자연스러운 경쟁을 통해 학교 내의 교육의 질이 높아짐

(관련사진)



신하정립초등학교 선생님과의 간담회



지역목재를 활용한 초등학교 내부전경

○ <9월3일> 카미가와 지역교류센터 방문

(면담자) 남바 유키오 지역교류센터장

(현황) 효고현의 중앙에 위치하는 카마가와조는 칸자키조와 오카와치 조라는 마을이 합병하여 생성된 곳으로 농가형으로 13년 동안 산촌유학 운영(55명 유학생) 후 지자체 주도의 산촌유학센터 건립하여 5년간 운영(현재 11명 유학)

(계기) 현재 지역교류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우치다니 제2소학교의 폐교 결정에 따라 지역교류의 역할을 담당할 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가장 큰 교류사업이 산촌유학임

(운영방법)

- 아이들은 한달 중 센터에서 22일, 지역 농가에서 8일 정도 생활하는 것이 기본이며 상주직원(지도원)은 3명
- 지역교육위원회에서 교류센터장 1명과 계장급 1명이 파견
- 산촌유학센터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 것은 카미가와조의 예산을 확보하기가 용이하기 때문

(성과)

- 1년 이상의 산촌유학과 함께 여름방학에 3박4일, 5박6일, 12박13일 캠프 및 환경학습캠프 2박3일 1회 실시
- 또한 9월 이후 미니산촌유학 3회(2박3일 1회, 1박2일 2회), 주말단기 산촌유학(3회, 1박2일), 겨울방학·봄방학 각 1회(4박5일)를 통해 연간 300여명의 아이들이 다녀감

(관련사진)



카미가와 지역교류센터장 남바유키오 면담



리모델링 이전의 우치다니 제2소학교

○ <9월4일~5일> 소다테루카이 사무국장과의 간담회

(면담자) 소다테루카이 야마모토 사무국장

(현황) 35년 동안 일본산촌유학의 중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 소다테루카이 소속 유학센터에서 일본 산촌유학생의 절반이상 생활

(일본 산촌유학 경과)

- 35년 전 교사생활을 하던 아오키다카야스 이사장이 도시아이들에게 자연체험이나 시골생활의 경험이 필요하는 생각에서 시작
- 15년 동안은 개인 사재로 운영되고 활동가는 자원봉사의 형태로 이루어져 운영자체가 아주 힘들어짐
- 20여년 전부터 지자체 등의 예산 지원을 통해 안정화 되어감
- 이후 일본 전국에 새로운 산촌유학센터라는 이름의 기관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김
- 신문과 방송을 통해 보도되면서 큰 붐이 일어났으나 이들의 목적은 도시아이들의 교육차원이 아닌 지역학교의 폐교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운영되다보니 당초 목적에서 이탈되는 현상 발생
- 금전적인 목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았지만,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도시부모와 농가부모 사이의 이견이 생기기 시작
- 특히 언론을 통해 산촌유학이 마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순화되는 특수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면서 갈등이 더 고조
- 이러한 갈등이 10여년 전에 최고조를 이루며 현재는 전성기의 절반 수준의 도시아이들이 유학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많은 유학센터도 운영을 중단하고 있음
- 소다테루카리와 같은 성격의 유학센터가 전국에 2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200여명의 도시학생이 유학생이 생활하고 있음(이중 소다테루카이 소속 유학센터에 100여명의 아이들이 생활)
- 10년 전 산촌유학센터가 전성기 일 때는 850여명이 유학을 하기도 함

(활성화방안)

- 35년의 일본 산촌유학을 운영한 소다테루카이는 지역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산촌유학의 지속가능성이 어렵고 지원금 없이 단기 캠프 위주로 운영할 경우 수익은 맞출 수 있지만, 교육적인 부분이 배제된다고 판단
- 교육시설이 되기 위해 자자체가 시설을 만들고 운영의 책임자가 되고 소다테루카이는 지도원(활동가)을 배치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증대시키는 형식 제안

- 현재 시마네현 오다시, 효고현 카미가조와 같은 곳이 새로운 형태로 운영 (성과)

- 예전보다는 직원의 운영부담은 줄고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되어 훨씬 안정된 형태로 유지
- 산촌유학을 지역의 교육으로 끌어들이며 개인의 혹은 지역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인지

(현안)

- 지자체의 지원이 도움은 되지만, 예산의 활용 1년 전 결정되어진 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불합리
- 예산을 크게 운영예산과 지도예산의 큰 범위로 두고 센터장이 아닌 회계담당자가 공무원으로 오고 예산의 활용은 지도원 등이 결정하는 방안 제안 예정
- 2명의 파견직원은 전체 사업 규모에 비해 많은 느낌이며 공무원과 소다테루카이와의 생각의 간극이 넓음
- 도쿄도의 이즈반도의 7개 섬 중에 도시마라는 작은 마을이 새로운 유학센터 준비하는데 시설과 운영비는 지자체가 만들고 운영은 소다테루카이와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제안

(향후계획)

- 지역주민을 경영에 참가시키고 수입지출은 오픈하여 산촌유학이 도시아이들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도움되는 것임을 인지(아쇼마을사례)

- 그동안 다녀갔던 산촌유학생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농산물 판매 등과 연계하여 상호 시너지효과 극대화
- 산촌유학이 단순히 지역주민이 도시민을 위해 퍼주기식의 사업이 아닌 지역도 함께 활성화 되는 다양한 방법 모색
- 또한 11명의 산촌유학생 뿐 아니라 여름방학 체험객, 단기캠프 참가자 모두 산촌유학생으로 생각하고, 이 아이들과 지역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는 것이 산촌유학의 장점
- 산촌유학은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워내는 것이라는 초심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관련사진)



지역교류센터가 위치한 카미가조초의 작은 마을



지역주민의 교류를 위한 작은 찻집(교류센터 내 위치)



일본전통의 모습을 이어가는 교류센터



소다테루카이 사무국장 야마모토씨



연구진과 함께하는 간담회